

제47호(2018. 4. 25.)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출 변화와 시사점

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목 차 contents

1. 농축산물 수출 개요	1
2. 부류별 수출 변화	3
3. 수출상대국 변화	5
4. 주요 품목별 수출 변화	8
5.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	11
6. 시사점	14

감 수	김상현 부연구위원	061-820-2280	sanghyun@krei.re.kr
내용 문의	지성대 부연구위원	061-820-2304	dongsimjst@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47호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출 변화와 시사점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4.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약
Summary

-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71.5억 달러를 기록함.
 - 2001~2009년 농축산물 수출액이 연평균 8.1% 증가했고, 2009~2011년 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1~2017년 연평균 증가율이 3.5%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의 집중화 경향이 심화됨.
 - 가공식품 비중은 FTA 초기('06~'10) 70.4%에서 FTA 후기('16~'17) 76.1%로 상승함.
 - 중분류에서도 기타 조제 농산품과 연초류의 비중이 FTA 후기 기준 각각 18.0%와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축산물 주요 수출상대국 중 EU, UAE, 대만, 베트남, 호주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일본, 중국의 비중은 하락했고, 미국의 비중은 하락했다가 회복세를 보임.
 - 일본의 비중은 FTA 초기 23.3%에서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FTA 후기 18.6%로 하락함.
 - 동기간 아세안의 비중은 11.1%에서 16.9%로 상승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함.
 - 중국의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사드(THAAD) 갈등의 여파로 16.0%로 하락함.
- 최근 수출이 급증한 품목은 연초류, 면류, 음료 등이며, FTA 초기 이후 대체로 수출 증가세를 보임.
 - 가공식품 중, 궐련, 라면, 기타 음료, 고추장, 홍삼조제품은 모두 FTA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신선 과일 중, 배, 포도는 FTA 초기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사과와 감귤 수출은 다소 정체됨.
 - 채소 중, 파프리카, 채소종자, 딸기, 느타리버섯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김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함.
 - 축산물 중, 조제분유, 생우유, 발효유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닭고기, 쇠고기는 최근 다소 감소하였으나 FTA 초기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함.
- FTA 체결국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50% 이하로 낮은 수준임.
 - 농축산물 주요 부류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나, 개별 품목의 연도별 활용률에는 편차가 존재함.
- 농축산물 수출 변화에 근거할 때, 향후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베트남, UAE 등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시장 확대, 신선 농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수출품목 다양화, 환율 변화, 정치적 갈등 등의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처, FTA 수출 활용률 제고 등이 관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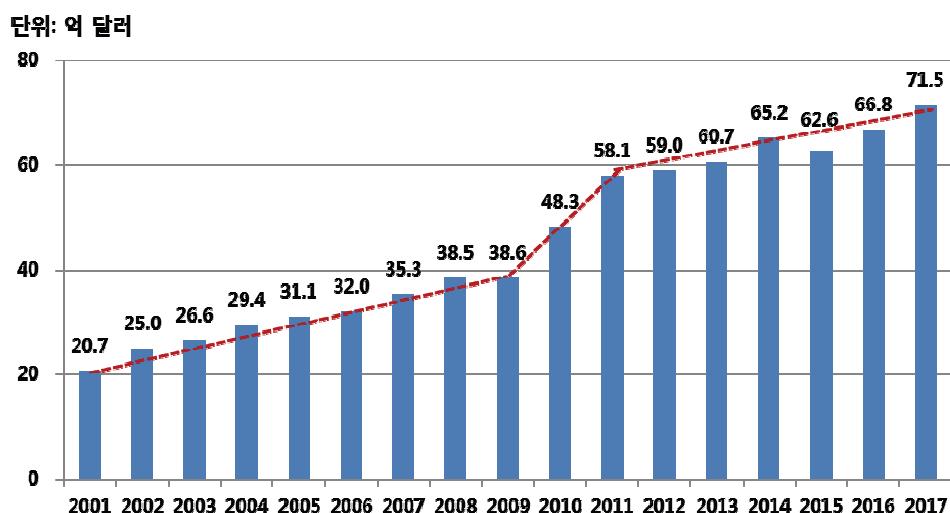
01 | 농축산물 수출 개요¹⁾

농축산물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70억 달러 초과

1.1. 전체 농축산물 수출 동향

-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71.5억 달러 기록
 - 2009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고, 2010~2011년 급증하였으며, 이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됨.
 - 2001~2017년 농축산물 수출액이 연평균 8.1%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2001~2009년 연평균 증가율은 8.0%이고, 2011년 수출액은 2009년 대비 무려 50.7% 증가했으며, 2011~2017년 연평균 증가율은 3.5%에 그침.
 - 2017년 농축산물 수출액은 7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2001년 대비 약 2.5배 증가함.

〈그림 1〉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출 동향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1) 농축산물 수출 실적은 3,068개 HSK코드 기준으로 교역통계를 집계함.

FTA 중기 농축산물 연평균 수출액은 전기 대비 58.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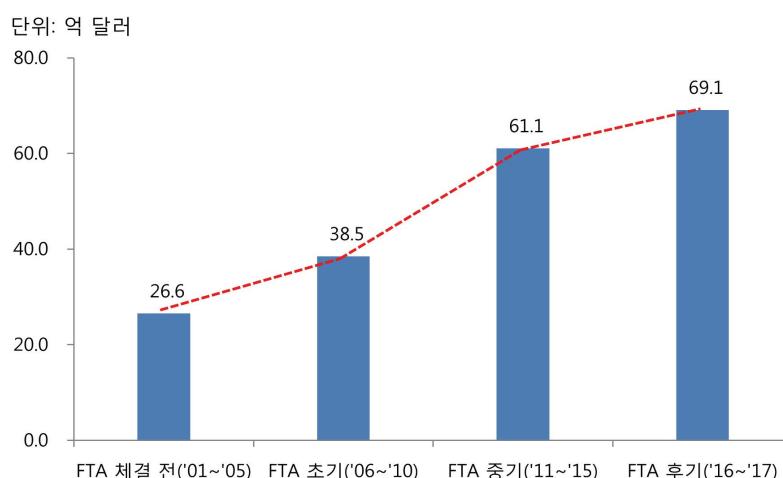
1.2. FTA 이행 단계별 농축산물 수출 동향

□ 우리나라는 52개 국가와 15건의 FTA를 체결하여 이행 중에 주요 FTA가 발효된 FTA 중기 ('11~'15) 농축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FTA 중기('11~'15) 농축산물 연평균 수출액은 61.1억 달러로 전기 대비 58.7% 증가
 - 이 시기에는 조기에 발효된 FTA는 물론 한·EU, 한·미 FTA 등 주요 FTA가 발효되어 이행 중에 있었음.
 - 한편, FTA 초기('06~'10) 농축산물 연평균 수출액은 38.5억 달러로 전기 대비 45.0%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 이행 단계별 발효된 FTA 현황
 - 초기('06~'10):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FTA
 - 중기('11~'15):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FTA
 - 후기('16~'17): 한·뉴질랜드, 한·중국,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FTA

※ 한·뉴질랜드, 한·중국, 한·베트남 FTA는 모두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어 그 효과가 2016년도부터 나타났다고 판단하여 FTA 후기단계에 편입시킴.

〈그림 2〉 FTA 이행 단계별 농축산물 수출 동향



주 1)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시기별 농축산물 수출액은 연도별 단순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시기는 FTA 발효 전('01~'05), FTA 초기('06~'10), 중기 ('11~'15), 후기('16~'17)로 구분함.

2) 한·칠레 FTA는 2004년 발효되었으나 시기 구분의 편의상 FTA 발효 전('01~'05) 단계에 편입시킴.

3) FTA 후기의 수출액은 2개 연도의 단순평균값으로 FTA 중기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4)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02 | 부류별 수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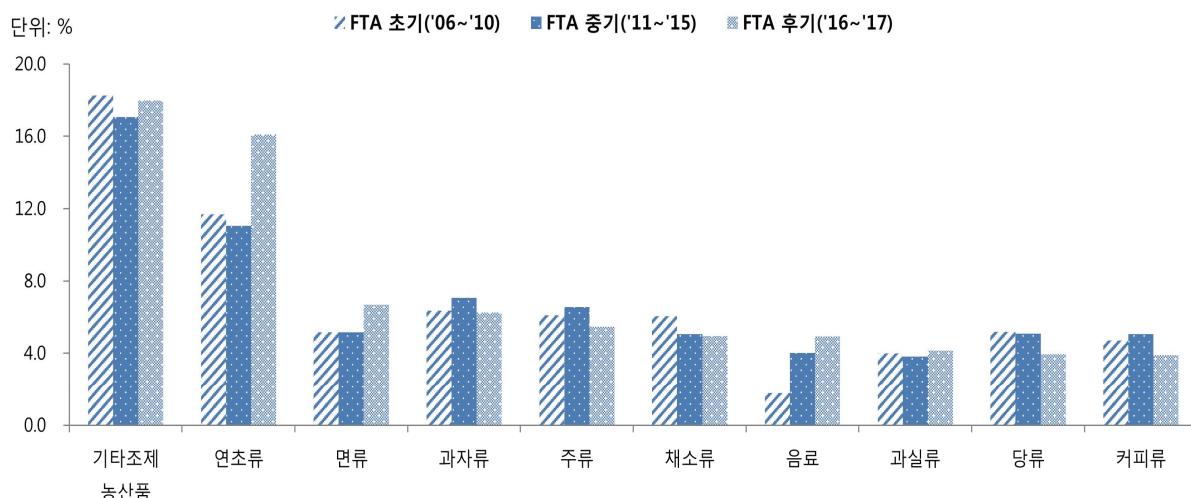
FTA 후기 연초류, 면류, 음료의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

2.1. 농축산물 수출 상위 품목 현황

- FTA 발효 이후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품목은 연초류, 면류, 음료 등임.

- 수출 비중이 큰 농축산물 중분류는 기타 조제 농산품²⁾, 연초류, 면류, 과자류, 주류, 채소류, 음료, 과실류, 당류, 커피류 등임.
 - 그중, FTA 후기 기준 기타 조제 농산품과 연초류의 비중은 각각 18.0%와 16.1%로 수출 품목의 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FTA 후기 연초류, 면류, 음료의 비중은 FTA 초기('06~'10) 대비 각각 4.4%p, 1.5%p, 3.2%p의 큰 상승폭을 보임.

〈그림 3〉 농축산물 수출 상위 품목 수출액 비중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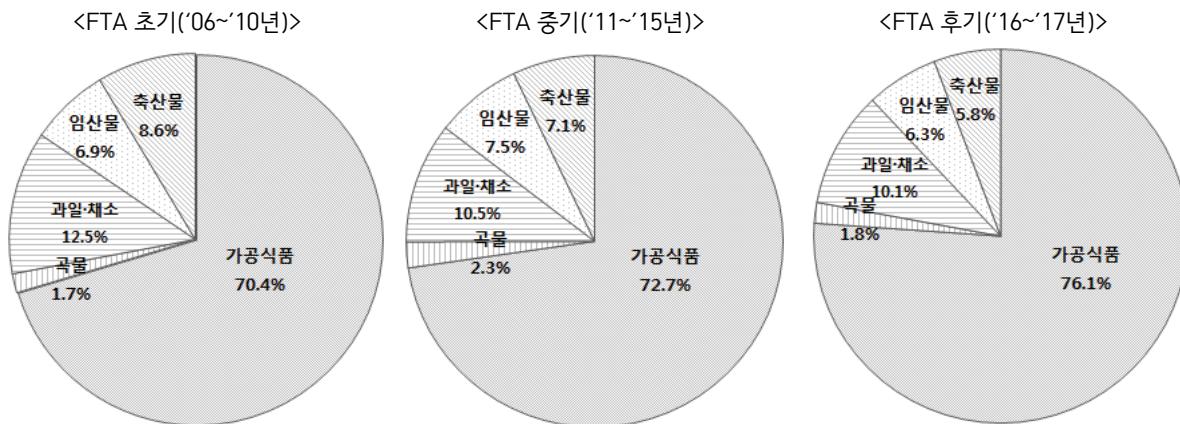
2) 기타 조제 농산품은 혼합 조제된 식료품이며 2017년 기타 조제 농산품 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HS코드 기준 2907.11-1000과 2106.90-9099로 각각 23.8%와 23.3%를 차지함. 2907.11-1000은 유기화학물인 페놀로써 의약용, 향료용으로 이용되며, 2106.90-9099는 '파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례에서는 후리가케, 제빵제조용 원료, 비타민을 첨가한 과실농축주스 등을 포함.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출 품목 중 가공식품 집중화 경향 심화

2.2.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 비중 변화

- 전체 농축산물 수출 품목 중 가공식품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그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FTA 후기 기준 전체 농축산물 수출 품목 중 가공식품의 비중이 76.1%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과일·채소(10.1%), 임산물(6.3%), 축산물(5.8%), 곡물(1.8%) 순임.
 - 가공식품 비중은 FTA 초기 70.4%에서 FTA 후기 76.1%로 상승하면서 집중화 경향이 더욱 심화됨.
 - 한편, 동 기간 과일채소와 축산물의 비중은 각각 2.4%p와 2.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FTA 이행 단계별 농축산물 부류별 비중 변화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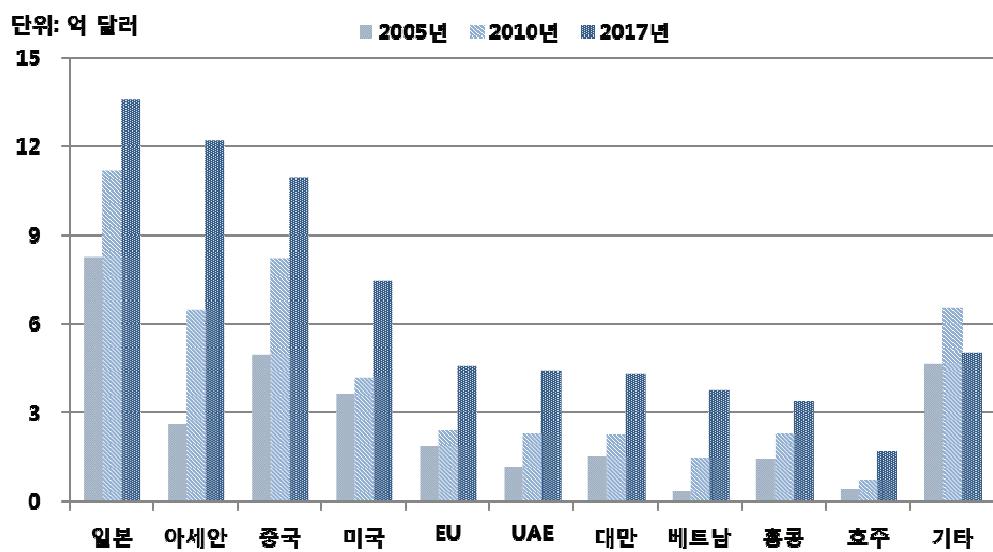
03 | 수출상대국 변화

FTA 발효 이후 아세안(베트남)과 UAE로의 농축산물 수출이 급증

3.1. 농축산물 주요 수출상대국 현황

- 농축산물 주요 수출상대국 중 일본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세안,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수출이 급증
 - 농축산물 주요 수출상대국 중, 아세안(베트남), 중국, 미국, EU, 호주는 FTA 체결국이고, 일본, UAE, 대만, 홍콩은 FTA 비체결국임.
 - FTA 체결국 중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 규모는 2005년 4위를 차지했으나, 2017년 2위까지 상승했고, 이에 중국과 미국은 각각 3위와 4위 농축산물 수출상대국으로 밀려남.
 -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對베트남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 증가를 견인함.
 - 또한, 2005년 對UAE 수출액 규모가 8위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 6위까지 상승함.
 - 2017년 기타 국가로의 수출액 규모가 20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아 FTA 발효 이후 주요 수출상대국으로의 수출 집중도가 높아짐.

〈그림 5〉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주요 수출상대국 현황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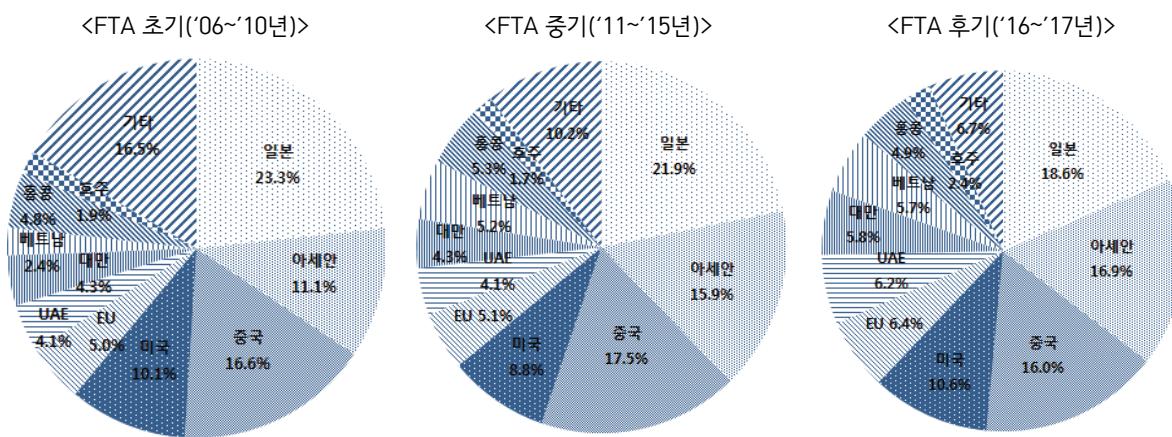
**농축산물 주요 수출상대국 중 일본, 중국 비중 하락,
아세안, EU, UAE, 대만, 베트남, 호주 비중 상승**

3.2. 농축산물 주요 수출상대국 비중 변화

□ 주요 수출상대국으로 농축산물 수출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본으로의 집중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임.

- FTA 후기 기준 농축산물 주요 수출상대국 중 일본의 비중이 18.6%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아세안(16.9%), 중국(16.0%), 미국(10.6%), EU(6.4%), UAE(6.2%) 순임.
 - 일본의 비중은 FTA 초기 23.3%에 달했으나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FTA 후기 18.6%로 4.7%p 하락함.
 - 반면, 동 기간 아세안의 비중은 11.1%에서 16.9%로 5.8%p 상승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함.
 - 중국의 비중은 FTA 초기 16.6%에서 FTA 중기 17.5%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사드(THAAD) 갈등의 여파 등으로 FTA 후기 16.0%까지 하락함.
 - 그 외 EU, UAE, 대만, 베트남, 호주로의 수출 비중도 상승하여 기타 국가들로의 수출 비중은 16.5%에서 6.7%로 하락함으로써 주요 수출상대국으로의 수출이 집중됨.

〈그림 6〉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중 변화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축산물 주요 수출상대국 중 베트남, 아세안, UAE, 중국의 상대기여도가 높음

3.3. 주요 수출상대국의 농축산물 수출 기여도

□ Chenery, H. et al.(1986)의 경제성장구조분석법(Factor Contributions to Growth)을 차용하여 주요 수출상대국의 농축산물 수출 증가 상대기여도를 산출함.

- 수출상대국별 농축산물 수출액이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각 국가의 기준 연도(2001년) 대비 증가율을 곱한 값을 절대기여도($\overline{q}_{ti} \cdot GR_{ti}$)라고 하고, 그 절대기여도를 절대기여도 전체 합계(GR_t)로 나눈 값이 상대기여도(Q_{ti})임.

$$GR_t = \sum_{i=1}^n \overline{q}_{ti} \cdot GR_{ti} \quad \text{---(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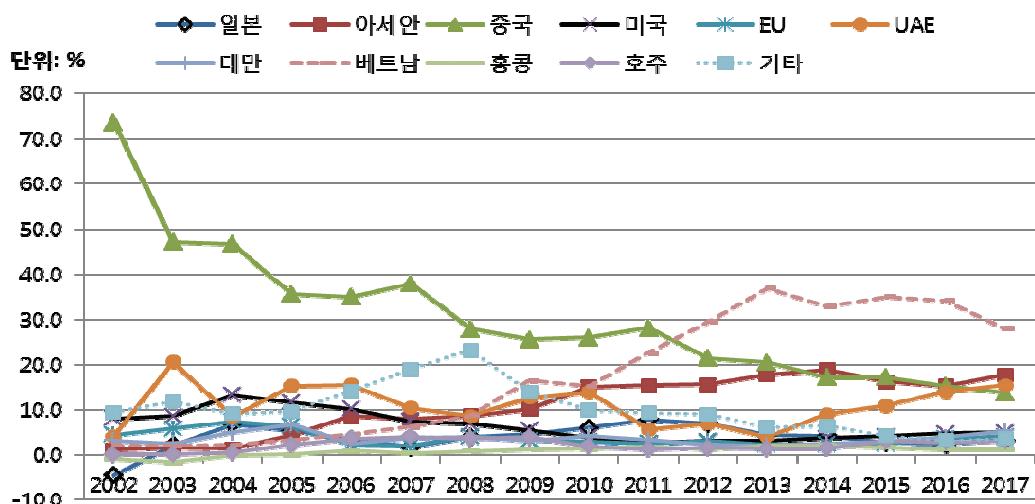
(GR_t : t 년도 농산물 수입액 누계증가율, GR_{ti} : i 번째 국가의 누계증가율, \overline{q}_{ti} : i 번째 국가 수입액이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Q_{ti} = \overline{q}_{ti} \cdot \frac{GR_{ti}}{GR_t} \times 100\% \quad \text{---(식 2)}$$

□ 분석결과, 주요 수출상대국 중 베트남, 아세안, UAE, 중국의 농축산물 수출 증가 상대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2017년 기준, 베트남의 상대기여도가 27.9%로 가장 높고, 아세안과 UAE는 각각 17.8%와 15.5%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은 13.8%로 지속적으로 하락함.

〈그림 7〉 주요 수출상대국의 농축산물 수출 증가 상대기여도 변화 추이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04 | 주요 품목별 수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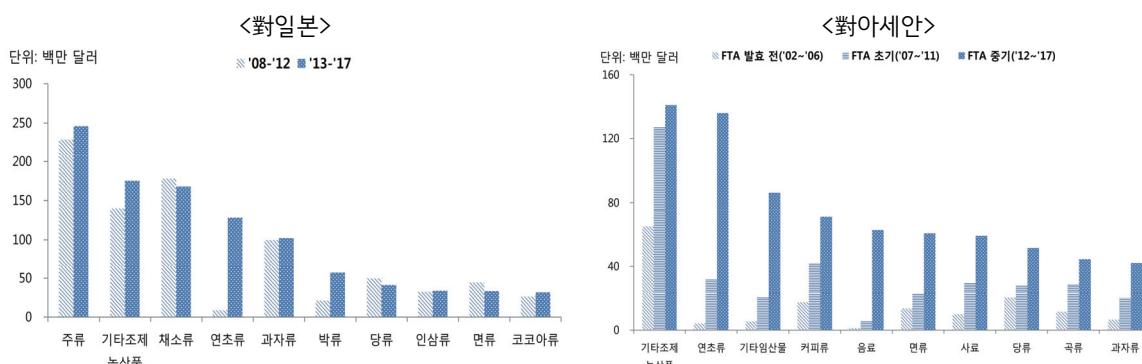
최근 주요 수출상대국으로 연초류, 면류, 음료 등의 수출이 급증

4.1. 주요 수출상대국별 수출 상위 품목

□ 농축산물 주요 수출상대국별 수출 상위 품목 및 최근 수출이 급증한 품목에 차이가 있음.

- 對일본 농축산물 최대 수출품목(중분류 기준)은 주류이고, 그다음은 기타 조제 농산품, 채소류, 연초류, 과자류 박류 등임.
 - 2013~2017년 연평균 수출액이 2008~2012년 연평균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기타 조제 농산품, 연초류, 박류이며, 동 기간 각각 25.4%, 1,352.9%, 171.6% 증가함.
- 對아세안 농축산물 최대 수출품목은 기타 조제 농산품이고, 그다음은 연초류, 기타 임산물, 커피류, 음료, 면류 등임.
 - FTA 중기('12~'17) 연평균 수출액이 FTA 초기('07~'11) 연평균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연초류, 기타 임산물, 음류, 면류이며, 동 기간 각각 4.2배, 4.3배, 11.5배, 2.7배 증가함.

〈그림 8〉 시기별 對일본/아세안 수출 상위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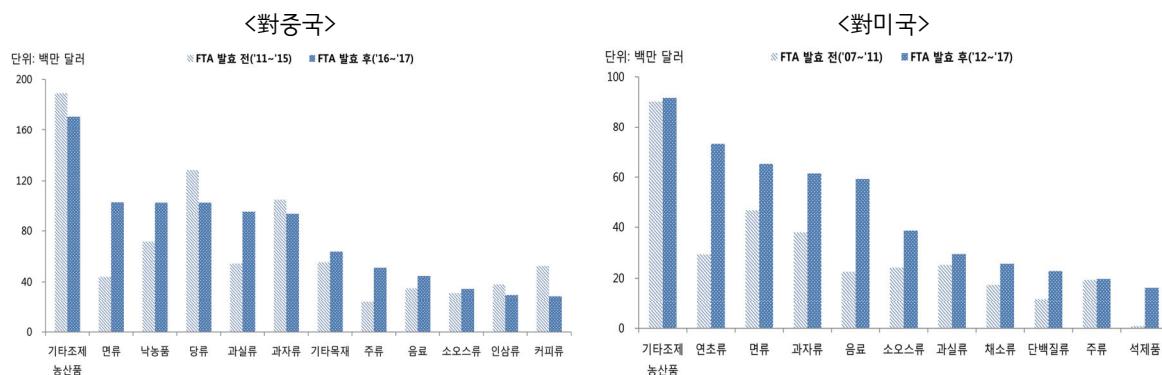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 對중국 농축산물 최대 수출품목은 기타 조제 농산품이고, 그다음은 면류, 낙농품, 당류, 과실류, 과자류 등임.
 - FTA 발효 후('16~'17) 평균 수출액이 발효 전('11~'15) 연평균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면류, 낙농품, 과실류이며, 동 기간 각각 134.1%, 44.1%, 75.7% 증가함.

- 對미국 농축산물 최대 수출품목은 기타 조제 농산품이고, 그다음은 연초류, 면류, 과자류, 음료, 소오스류 등임.
 - FTA 발효 후('12~'17) 평균 수출액이 발효 전('07~'11) 연평균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연초류, 면류, 과자류, 음료, 소오스류이며, 동 기간 각각 149.5%, 39.3%, 62.3%, 163.5%, 59.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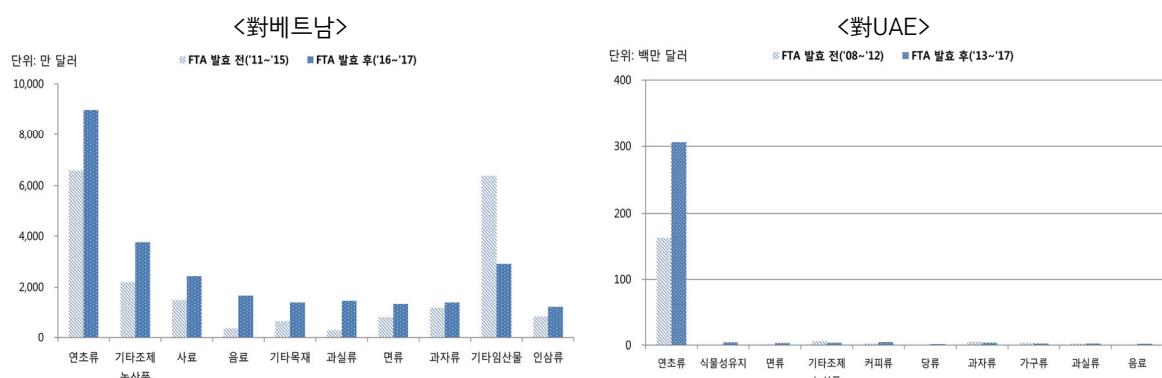
〈그림 9〉 시기별 對중국/미국 수출 상위품목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 對베트남 농축산물 최대 수출품목은 연초류이고, 그다음은 기타 조제 농산품, 사료, 음료 등임.
 - 특히, 연초류는 FTA 발효 후('16~'17) 평균 수출액이 발효 전('11~'15) 연평균 대비 약 1.4 배 증가하면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전체 농축산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0%(2017년 기준)에 달함. 동 기간 기타 조제 농산품, 사료, 음료도 각각 71.8%, 62.5%, 374.2% 증가함.
- 對UAE 농축산물 수출은 연초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UAE로 수출되는 농축산물의 91.6% (2017년 기준)를 연초류가 차지함.
 - 2013~2017년 연초류 연평균 수출액이 2008~2012년 연평균 대비 88.4% 증가함으로써 對UAE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를 견인함.

〈그림 10〉 시기별 對베트남/UAE 수출 상위품목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축산물 주요 수출품목 중 다수가 FTA 초기에 비해 수출이 크게 증가

4.2. 시기별 주요 농축산물 수출 동향

- 농축산물 주요 수출품목 대부분이 FTA 초기('06~'10) 이후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FTA 후기('16~'17)에 수출이 감소한 품목도 다수 존재함.
 - 가공식품 중, 월련, 라면, 기타 음료, 고추장, 홍삼조제품은 모두 FTA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신선 과일 중, 배, 포도는 FTA 초기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사과와 감귤 수출은 다소 정체됨.
 - 채소 중, 파프리카, 채소종자, 딸기, 느타리버섯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김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함.
 - 축산물 중, 조제분유, 생우유, 발효유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닭고기, 쇠고기는 최근 다소 감소하였으나 FTA 초기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함.

〈표 1〉 시기별 주요 농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만 달러. %

		FTA 체결 전 ('01~'05)	FTA 초기 ('06~'10)	FTA 중기 ('11~'15)	FTA 후기 ('16~'17)	증감률 (후기/초기)	증감률 (후기/중기)
가공식품	월련	18,596	43,770	64,739	105,357	140.7	62.7
	라면	13,645	12,939	20,655	33,568	159.4	62.5
	기타음료	885	4,106	15,884	21,924	433.9	38.0
	고추장	876	1,264	2,537	3,165	150.4	24.7
	홍삼조제품	341	790	1,878	2,842	259.6	51.4
신선 과일	배	3,500	4,817	5,436	6,576	36.5	21.0
	감	409	756	1,131	839	11.1	-25.8
	사과	756	1,027	690	788	-23.3	14.3
	포도	37	156	199	681	336.0	242.0
	감귤	477	250	403	235	-6.0	-41.7
채소	파프리카	2,416	5,173	8,131	9,164	77.2	12.7
	김치	8,739	8,374	9,161	8,015	-4.3	-12.5
	채소종자	1,575	2,168	3,900	5,509	154.1	41.3
	딸기	600	1,396	2,822	3,905	179.7	38.4
	느타리버섯	13	351	1,468	1,951	455.7	32.9
	팽이버섯	33	1,281	1,870	1,765	37.9	-5.6
축산물	조제분유	624	1,897	7,336	9,961	425.2	35.8
	닭고기	365	1,455	3,628	2,655	82.5	-26.8
	생우유	5	64	961	1,544	2,312.4	60.7
	쇠고기	32	352	1,536	1,459	314.7	-5.1
	발효유	455	559	750	888	59.0	18.3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05 |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상승세를 보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

5.1. FTA 체결국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 FTA 체결국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2012년 8개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0.9%에 불과했으나, 2017년 15개 FTA가 발효된 가운데 활용률이 43.5%까지 상승함.
 - 2017년 기준, 對터키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78.6%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인도(63.7%), 캐나다(60.9%), 페루(55.2%), 뉴질랜드(51.9%), EU(50.9%) 순이며,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 활용률이 8.3%로 가장 낮고,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칠레와 체결한 FTA 활용률도 저조한 편임.

〈표 2〉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발효일	체결국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위: %
2004.04.	칠레	29.9	28.9	39.6	48.3	48.4	38.3	
2006.03.	싱가포르	0.6	6.7	0.0	23.0	30.4	28.9	
2006.09.	EFTA	78.8	73.5	87.0	83.7	36.8	42.9	
2009.09.	ASEAN	2.8	3.6	2.3	32.6	41.2	40.3	
2010.01.	인도	0.4	0.1	0.0	57.4	65.3	63.7	
2011.07.	EU	58.5	63.7	70.2	69.5	55.0	50.9	
2011.08.	페루	55.9	69.7	39.7	82.2	70.4	55.2	
2012.03.	미국	34.8	46.7	46.2	47.8	48.6	46.8	
2013.05.	터키	-	31.7	43.8	58.5	60.8	78.6	
2014.12.	호주	-	-	1.6	34.9	36.9	36.8	
2015.01.	캐나다	-	-	-	65.5	63.3	60.9	
2015.12.	중국	-	-	-	9.5	29.6	44.7	
2015.12.	뉴질랜드	-	-	-	21.2	38.7	51.9	
2015.12.	베트남	-	-	-	22.8	30.3	32.2	
2016.07.	콜롬비아	-	-	-	-	3.8	8.3	
총계		20.9	23.8	22.6	32.3	40.2	43.5	

주 1)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FTA 대상 품목'의 수출액 대비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은 품목의 수출액 비중임.

2) 'FTA 대상 품목'은 FTA 협상결과에 따른 관세 인하(철폐)로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HS코드와 수출상대국의 HS코드 매칭이 어려워 'FTA 대상 품목' 수출액을 특정하지 못하여 해당 품목의 전체 수출액을 사용함으로써 특혜관세 활용률이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출됨.

3) 또한,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 수출 품목의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상이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원산지 증명을 발급 받았음에도 수출신고필증에 신고 누락, 가공식품의 역외 원료 비중이 높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건 미충족, 수입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미요청 등이 있음.

4)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5.2. 주요 부류별/품목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 농축산물 주요 부류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나, 개별 품목의 연도별 활용률은 편차가 존재함.
 - 가공식품 중, 고추장, 기타 음료, 라면, 홍삼조제품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중 라면과 홍삼조제품의 2017년 활용률은 각각 70.6%와 72.5%로 높은 편임. 그러나, 궤련의 활용률은 1% 미만으로 저조함.
 - 궤련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원인은, 태국의 원산지규정에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FOB 가격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미국의 원산지규정에도 60% 이상의 국산 잎담배 비중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협정관세율 적용 가능한 수출량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
 - 2017년 기준, 신선 과일 전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0.9%로 다른 부류에 비해 높은 편이며, 감, 감귤, 사과, 포도의 활용률은 연도별 편차가 큰 편임.
 - 채소 중,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의 2017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73.8%와 86.7%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김치, 딸기, 채소종자의 활용률은 낮은 수준으로 연도별 편차도 큼.
 - 채소종자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원인은, 주요 수출 상대국인 중국, 미국, 인도의 기준관세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나 이미 철폐되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동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중국 채소종자(1209.91-00)의 기준관세율은 이미 0%이고, 미국의 6개 채소종자(1209.91) 관세율도 0%이며, 인도 채소종자의 기준관세율은 5%에 불과하고 2020년 2.5%로 하락함.
 - 축산물 중, 닭고기, 밸효유, 생우유, 쇠고기, 조제분유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생우유와 쇠고기의 2017년 활용률은 각각 0.3%와 4.8%로 미미한 수준임.
 - 생우유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1% 미만인 원인은, 생우유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가운데 한·중 FTA에서 우유가 양허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활용률 산출 시 양허 제외 여부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임.
 - 쇠고기는 육포, 쇠고기 패티 등 육가공품 형태로 주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원인은 주요 수출상대국인 베트남(2017년 수출시장 점유율 45.2%)의 원산지규정에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FOB가격의 40%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

〈표 3〉 주요 부류별/품목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공식품	14.7	16.7	17.0	36.3	44.0	46.2
고추장	16.7	29.9	21.3	43.7	43.7	42.7
궐련	1.4	0.5	0.1	0.3	0.3	0.5
기타 음료	26.2	30.5	52.1	52.9	54.5	55.2
라면	23.9	30.4	32.8	47.8	59.7	70.6
홍삼조제품	19.4	16.5	24.8	39.4	57.6	72.5
신선 과일	23.1	25.1	31.7	55.6	54.3	50.9
감	0.4	0.3	2.1	50.2	40.6	61.8
감귤	9.6	18.4	39.4	32.2	32.8	43.2
배	34.7	35.3	42.0	56.8	59.3	53.0
사과	3.8	0.0	5.1	65.9	44.5	36.4
포도	28.1	40.3	38.7	80.1	48.8	36.1
채소	14.5	19.1	21.4	34.5	40.7	41.9
김치	10.8	25.2	46.5	27.2	32.8	48.8
느타리버섯	41.3	42.4	50.2	76.9	76.4	73.8
딸기	0.0	0.0	0.0	21.6	37.3	25.7
채소종자	8.6	16.9	5.5	13.6	19.8	15.6
파프리카	0.1	0.0	0.0	0.0	19.9	25.7
팽이버섯	24.5	30.4	32.5	73.4	83.4	86.7
축산물	9.8	15.4	11.6	23.1	34.4	42.6
닭고기	0.0	0.0	0.5	34.4	40.9	23.9
발효유	40.3	39.8	32.8	65.2	50.4	44.0
생우유	0.0	0.0	0.0	0.6	0.6	0.3
쇠고기	0.0	1.4	0.0	0.6	1.5	4.8
조제분유	0.0	0.0	0.0	1.5	26.4	38.1

주 1)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FTA 대상 품목'의 수출액 대비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은 품목의 수출액 비중임.

2) 'FTA 대상 품목'은 FTA 협상결과에 따른 관세 인하(철폐)로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HS코드와 수출상대국의 HS코드 마칭이 어려워 'FTA 대상 품목' 수출액을 특정하지 못하여 해당 품목의 전체 수출액을 사용함으로써 특혜관세 활용률이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출됨.

3)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06 | 시사점

향후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품목 다양화, 불확실성 요인 최소화, FTA 활용률 제고가 관건

- 최근 FTA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규모가 증가했으나, 이전에 비해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되었고, 수출 품목은 가공식품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경향을 보임.
 - 2011년 이후 한·EU, 한·미, 한·중 FTA 등 주요 FTA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5%에 그침.
 - 2016~2017년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가공식품 중에서도 기타 조제 농산품과 연초류의 비중이 큼.
- 농축산물 주요 수출상대국 중 아세안(베트남)과 UAE로의 수출이 급증하였으나, 수출 증가 품목은 특정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 규모는 2005년 4위에서 2017년 2위로 상승하였고, 동 기간 對UAE 수출액 규모는 8위에서 6위로 상승함.
 - 한편, 對일본 수출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다소 정체되었고, 對중국 수출도 사드(THAAD) 갈등의 여파로 위축되어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함.
 - 對베트남, 對UAE 농축산물 수출은 각각 기타 조제 농산품, 연초류에 과도하게 집중된 가운데 수출 증가를 주도함.
- FTA 체결국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상승은 상당히 긍정적이며, 특히 2015년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는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0%로 이하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한편으로 활용률의 제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농축산물 수출 변화에 근거할 때, 향후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품목 다양화, 불확성 요인 최소화, FTA 수출 활용률 제고 등이 관건임.

- 즉, 베트남, UAE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하며, 특히 新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지리적 접근성 및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 등의 비교우위를 갖는 아세안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
- 가공식품 수출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품목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내 신선 농산물 수급안정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환율 변화, 정치적 갈등 등 외부의 불확실성 요인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며, 수출선 다변화 및 수출품목 다변화가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원산지 증명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및 그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